

경천(敬天)의 실천과 인류평화

崔 東 熙 *

目 次

머리말

1. 역사 속 상제와 종단 속 상제
2. 공경의 세 단계의 의미
3. 경천의 참된 의미와 인류평화

머리말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신조(信條) 가운데 ‘경천(敬天)’이라는 조목이 들어있다. 이것은 ‘경천’이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위 『요람』에 나타난 신앙의 대상, 종지, 신조, 목적, 수도, 도인의 수칙 등은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에 속해 있다. 거기에 나타난 많은 조목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짜임새 있는 하나의 기본교리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 하나 하나의 조목들은 전체를 위해 저마다 독자적인 기능을 질서있게 다할 수 있게 된다. 경천이라는 조목도 이와 같이 기본교리체계 속에서 그 독자적인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

‘경천(敬天)’은 기본교리체계 속에서 ‘신앙의 대상’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천’은 상제를 공경하는 것인데 상제는 바로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제를 공경하는 것은 대순진리회의 근본적인 신앙인데 이 신앙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렇게 ‘경천’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修道)’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도’라는 조목은 대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순진리회의 종교 실천을 위한 근본정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경천'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다.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체계 안에서 특히 '신앙의 대상'과 '수도'의 두 조목을 깊이 고려하면서 '경천'의 의미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볼 수 있게 되었다.

'경천(敬天)'이란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상제(上帝)는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매우 독자적인 신앙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상제와는 다르다. 한 독자적인 종단에서 독자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도 매우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널리 써 온 말이기도 하다. 우리 문화·역사 속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종교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도덕철학적인 의미로 써 왔다. 우리 문화 속에서 태어난 종단인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공경'도 우리 문화 속에서 써 온 공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독자적인 신앙체계 안에서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신중히 반성하면서 '경천'이 뜻하는 종교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 도덕철학적인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역사 속 상제와 종단 속 상제

저 중국 고대신앙 속에 상제(上帝) 또는 천(天)이라는 신앙의 대상이 나타나 있다. 은대(殷代)에는 주로 상제라 하였고 주대(周代)에는 상제라고 하였지만 차츰 천이라는 이름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중국 역사와 우리 역사에서 상제와 천은 대체로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중국 역사에 나타나는 상제 또는 천과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상제 또는 천은 그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또 이 양쪽 사이에 어떤 공통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도 있다.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상제 또는 천도 저 중국 역사로부터 우리 역사 속으로 받아들여져 쭉 변하여 온 말이다. 그렇기는 하나 대순진리회는 한 종단으로서 상제 또는 천이라는 말에 그 독자적인 신앙체계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상제 또는 천은 한 종단으로서 갖추고 있는 교리체계에 의하여 그 특성이 규정되어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독자적인 신앙의 대상인 '상제님'은 원칙적으로는 이 종단의 신앙체계를 통하여 종교적으로 체험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공통적인 지성과 심정을 통해 누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종교도 인간의 공통적인 심정과 지성을 통해 그 종교적인 깊은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그 동안 종교학에 의해 더욱 더 열리게 되었다. 모든 종교가 인간의 공통적인 심정과 지성 속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이해가 종교학의 발전으로 더욱 더 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자기 종교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깊어질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깊어져 감에 따라 참된 인류평화의 길도 그만큼 열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종교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마음이 평화로울 수 없다.

우선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인 상제(上帝)가 다른 종단의 신앙대상과 다르다는 것을 좀 쉬운 방법으로 부각시켜 보기로 한다.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삼십년을 지내시면서 ---- (『전경』 예시1절)

저 구천(九天)에 있다고 하는 상제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중국문화의 영역이나 그 영향을 받은 문화의 영역에 있었다. 따라서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온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구천에 있는 상제가 “신성·불·보살 등”의 호소를 받아들여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나라 일부 종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이다. 이것은 증산 계열의 종단에서 믿는 신앙대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제가 아니고 매우 독특한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상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 (『전경』, 교운 제2장 32절)

1925년(乙丑年)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 道昌現)에 도장이 마련되었다. 이 때 도주(道主 趙鼎山)가 무극도(無極道)라는 종단을 새로 세우고 상제님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라는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이름(尊號)을 삼가 바쳤다. 이것은 상제의 놀라운 힘과 덕을 그만큼 더욱 깊게 더욱 넓게 밝혀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 이것은 '무극도'에서 믿는 상제가 그만큼 독자적인 신앙대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1958년(戊戌年) 3월 6일에 도주 조정산(道主 趙鼎山)의 유명에 의한 종통계승을 받으시다. 1969년(己酉年) 4월에 도전(都典)께서는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시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시다. (『대순진리회요람』, 四, 연혁)

도주(道主 趙鼎山)의 유명에 의해 종단의 전통을 이어받은 도전(都典 朴漢慶)이 1969년 4월에 종단의 기구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 이렇게 종단(無極道)의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해 '대순진리회'를 창설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종단의 전반적인 기구는 그 신앙대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종단의 기구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는 과정에는 신앙대상의 새로운 이해 또는 해석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신앙대상인 상제는 그만큼 독자적인 신앙대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대순진리회가 한 종단으로서 걸어 온 과정에서 그 신앙대상이 미묘하게 새로 이해되고 새로 해석되어 온 사정을 대충 살펴보았다. 다시 간추려 보면 그 신앙대상(상제)의 의미내용은 증산(甌山 姜一淳)의 가르침에 의해 그 큰 줄기가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이해와 해석은 믿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 다르다. 그 큰 줄기란 궁극적인 존재인 상제가 우리 나라 전라도 어느 곳에서 사람(甌山)으로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학의 사례로서,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상제를 믿는 종단이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었고 지금도 있다. 대순진리회도 그 가운데

데 있는 한 종단이다. 그런데 이들 종단에서 믿고 있는 상제의 의미가 서로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서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은 종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는 대순진리회에서 믿는 상제가 증산 계열의 다른 종단에서 믿는 상제와 그 의미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친다. 여기서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단으로서 활동해 온 과정 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신앙의 내용 쪽으로 상제의 종교적인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는 방향이 있다. 이 방향에서 여기서는 ‘상제님을 공경함(敬天)’이라는 내적인 신앙태도를 이해하여 보려고 한다. 이 방향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신앙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이 근원적인 신앙태도의 이해를 통해 모든 종교의 참된 대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2. 공경의 세 단계의 의미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인 ‘경천(敬天)’은 표현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글자 그대로 ‘천(天)을 공경한다’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천(天)이 중국 문화 속의 천(天)일 수도 있고 우리 문화 속의 하늘(또는 하늘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라는 점에서 우리말로는 ‘상제님을 공경하다’라고 옮겨야 한다.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써 왔다. 1527년(朝鮮中宗二十二年)에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경(敬)이라는 글자를 “공경 경”이라고 읽었다. 이것은 이 무렵에 공경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훨씬 이전에 유교가 우리 사회로 흘러 들어올 때부터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중국의 유교 영향 밑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쓰이게 되었다.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사상사의 흐름에 따라 공경이라는 말이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단계에서는 중국 고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중국 봉건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고 셋째 단계에서는 도덕적인 자각 위

에서 도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더없이 높은 상제님이 저를 헤아려주지 않으시네. 밝게 살피시는 신들을 경공(敬恭)하였으니 이렇게 저를 닦하고 성내지 마소서.(『詩經』, 大雅, 雲漢)

여기서 말하는 “밝게 살피는 신들(明神)”은 상제를 비롯한 일·월·성·신의 신들(天宗, 곧 日月星辰之神)과 동방·서방·남방·북방의 신들(四方神) 및 토신(社, 곧 土神)을 말한다. 이러한 신들에 대한 최고의 종교적인 태도가 바로 경공(敬恭)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敬)은 “두렵게 여김” 또는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肅, 慎)”을 뜻한다. 그리고 공(恭)은 “받든다(奉)”는 옛스러운 뜻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경공(敬恭)은 본래 저 상제를 비롯한 영명(靈明)한 신들에 대하여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경이라는 말에 삼가고 받든다는 옛스러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종교적인 뜻이다. 이 삼가고 받든다는 것은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몸과 마음을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삼가고 몸가짐과 말을 조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깨끗이 가지고 그 작은 움직임도 조심하고 삼간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소극적인 단계 곧 몸과 마음의 준비 단계일 것이다. 더 나아가 신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셔야 한다. 신령이 바라고 즐기는 모든 것을, 희생도 각종의 음식도 정성껏 바치려고 해야 한다. 또 온 성의도 마음도 온 생명도 바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영명한 신들에 대하여 삼가고 받드는 것이 종교적인 단계의 공경이다. 이러한 공경은 제사나 그 밖의 엄숙한 종교의식을 통해 현실적으로 표현된다.

다음 단계의 공경은 주로 윤리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다. “군자가 말함이 그 기준을 어기지 않고, 행함이 그릇되지 않으면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경공(敬恭)하게 됩니다.”(『禮記』, 哀公問) 여기서도 경공이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지배자(君子)인 제후(諸侯)와 백성 사이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곧 백성이 그 임금님께 삼가고 받든다는 뜻이다. 여기서 “받든다”는 말의 뜻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곧 받든다(恭)는 말이

희생 같은 것을 바친다는 뜻으로부터 웃어른을 높인다는 뜻으로 변했다. 사실은 동시에 자기를 낮춘다(謙, 遜)는 뜻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공(敬恭)이 삼가고 받든다는 뜻으로부터 삼가고 저를 낮춘다는 뜻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 말 형태도 공경(恭敬)으로 변해 갔다. “안자(晏子)는 예를 안다고 이를 만하다. 그는 공경(의 덕)을 갖추었기 때문이다.”(『禮記』, 檀弓 下) 여기서는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곧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예의 근본정신이라는 뜻이다. 이 때의 공경은 저를 낮추고 마음을 삼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저를 낮추는 것은 곧 남을 높이는 것을 뜻하는 데 이것을 공손(恭遜) 또는 사퇴(辭退)라고 한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일찍부터 공(恭)을 “온공 공”(訓蒙字會, 崔世珍, 1527)이라고 읽어 왔다. 이것은 바로 공(恭)을 온순하고 공손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여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경(敬)도 몸과 마음을 삼간다는 뜻으로부터 마음을 삼간다는 뜻으로 변해 갔고 다시 제 마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변해 갔다.

끝으로 셋째 단계의 공경은 도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없이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은 인(仁)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羞惡之心)은 의(義)이다.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은 예(禮)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은 지(智)다. 인·의·예·지는 밖으로부터 우리를 쇠물로 입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들을 본래 갖추고 있다.(『孟子』, 告子 上)

이렇게 맹자는 공경하는 마음을 예(禮)의 싹이라고 한다.(여기서는 그저 예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 ‘공손축 상’(公孫丑 上)에서 이미 예의 싹(禮之端)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여 그저 예라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맹자는 예의 싹(禮之端)은 다른 세 덕의 싹(인·의·지의 싹)과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인·의·예·지의 네 가지 덕의 싹(四端)이 본래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른바 맹자의 성선설(性善說)이다.

이와 같이 맹자는 공경하는 마음(恭敬之心)을 네 가지 덕(四德, 仁義禮智) 가운데 하나인 ‘예의 싹(禮之端)’이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맹자는 공경하는 마음을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 『孟子』, 公孫丑 上)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맹자에 있어서는 공경과 사양은 그 뜻이 거의 같다. 사양은 사퇴(辭退)하고 양보(讓步)한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남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사퇴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양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체로 남을 높이고 자기를 삼가는 저 윤리적인 공경과 같다. 그러나 윤리적인 공경은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위한 외적인 실천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맹자는 사람이 본래 타고난 공경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타고난 순수한 도덕의식 곧 순수실천이성이 문제될 뿐이다. 이런 단계의 공경을 도덕적인 공경 또는 도덕철학적인 공경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천의 참된 의미와 인류평화

대순진리회의 기본교리 가운데 하나가 경천(敬天)이다. 이 경천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대순진리회에서 독자적으로 쓰는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언어라는 것이 무엇보다 주목되어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그 종단의 독자적인 기본교리를 그 종단의 사정에 따라 ‘경천’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앞에서 ‘공경(恭敬)’이라는 말의 세 단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를 ‘경천’에 적용하여 상제님을 공경하는 세 단계의 종교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 첫 단계가 종교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둘째 단계가 윤리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도덕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첫째로 종교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종단이 공적으로 마련한 신앙의식을 통해 신도들이 다 같이 상제님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대순진리회가 한 종단으로서 그 신앙대상인 상제님을 공경하는 독자적인 신앙양식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신도가 상제님을 공경하게 된다. 여기에 두 가지 형식이 있는 데 그 하나가 집단적인 의식이고 그 다른 하나가 개인적인

수도다. 그 어느 형식이든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이 직접 상제님을 공경하는 엄숙한 종교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앞에서 말한 종교적인 의미의 공경이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절대적인 존재인 상제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삼가고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종교적으로 순수한 공경은 직접 절대적인 존재와 만나는 순간의 몸과 마음의 놀라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종교체험 또는 신비적인 종교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신성한 존재)를 직접 만나 몸과 마음이 문득 성스러운 경지에 이르는 종교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는 '경천'(상제님을 공경함)이라는 순수한 종교체험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으며 다른 모든 종교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둘째로 윤리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신도로서 일반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윤리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윤리적인 실천의 근본정신이 바로 윤리적인 의미의 공경이다. 곧 남을 존중하고(恭), 자기를 삼가고 경계하는 것(敬)이 공경이다. 여기에 두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상제님의 공경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게 되는 방향이 있고 거꾸로 다른 사람을 윤리적으로 공경하는 실천이 상제님의 공경으로 발전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셋째로 도덕적으로 상제님을 공경하는 경우도 둘째 경우와 같다. 상제의 공경을 바탕으로 훌륭한 도덕적인 자각의 길이 열릴 수 있고 거꾸로 도덕적인 자각이 상제님의 공경으로 발전하는 길도 있다.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둔다”는 기본교리에 따르면 위 세 단계의 ‘경천’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연관을 이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근원이 되는 것은 저 종교적인 단계의 ‘경천’이다. 이 결정적인 종교체험으로서의 ‘경천’이야말로 모든 종교적인 활동의 근원인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이다.